

# 민주노총, 노동·진보 정치 발전 위한 총선 투쟁 방침 발표

8 변백선 기자 | 승인 2016.03.24 18:02

"재벌이 망친 민생경제, 박근혜 대통령이 무너뜨린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자!"



▲ 민주노총은 23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민주노총 후보 및 투표 방침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4월 총선 투쟁 승리하자!"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4.13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민주노총이 인간다운 삶과 평화와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바람을 담아 이번 총선에서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고 노동·진보 정치의 희망을 위한 20대 총선 투쟁 방침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23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민주노총 후보 및 투표 방침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여는 말을 통해 "민주노총은 20대 총선의 결과에 대해 기대를 하지만 한편 우려도 크다. 지난 1년 내내 노동개약을 막아내기 위해 총파업과 총궐기로 싸워왔다. 그러나 하나도 우리의 요구는 반영되지 않고, 쉽게 하고 하고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구체화 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 진정하게 민주노총이 선정한 후보가 노동개약을 저지하고 떨어진 민주주의를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전략 지역구 후보로 창원 성산의 노회찬 후보, 울산 북구의 윤종오 후보, 울산 동구의 김종훈 후보, 경주의 권영국 후보, 부산 진구 을의 김재하 후보, 대전 동구의 이대식 후보, 대구 달성의 조정훈 후보 등 7명으로 선정됐다.

진보정치 1번지라고 하는 창원 성산지역의 노회찬 후보는 새누리당 권력독점을 허물고 진보정치 1번지를 탈환해 진보정치의 시작점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울산 북구 윤종오 후보와 울산 동구 김종훈 후보는 진보 후보단일화 성사의 여세를 몰아 창원 성산과 함께 진보벨트 형성에 힘을 보탠다.

용산참사 철거민을 위해 함께 했던 '거리의 변호사' 권영국 후보는 용산참사 때 경찰의 강제진압을 지휘한 김석기 전 경찰청장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한 후보다. 정권의 사회적 탄압에 대한 상징적 투쟁의 의미가 있다.

부산 진구 을에 출마하는 김재하 후보는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장으로 민주노총 투쟁의 가장 모범적인 단위인 부산에서 노동진보정치를 복원하기 위해 책임지고 나섰다. 새누리당이 강세인 부산에서 유일한 노동후보이자 민주노총 후보이다.

대전 동구의 이대식 후보는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장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호위무사라고 자처하는 이장우 새누리당 후보에 맞서 노동개약 세력을 심판하고 노동정치 복원의 기조로 출마했다. 총파업 조직이 곧 선거투쟁의 승리라는 목표로 총선투쟁을 진행한다.

대구 달성의 조정훈 후보는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수석본부장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옛 지역구에서 세월호 참사, 노동개약 등을 총괄했던 소위 박근혜 대리인인 추경호 전 국무조정실장과 맞붙게 된다.



▲ 양동규 민주노총 정치위원장이 민주노총 후보 및 투표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의 가장 절실한 당면 요구인 노동개약을 앞장서서 추진해왔고 지금도 노동개약 행정지침 및 노동법안 폐기 요구를 외면하면서 2천만 노동자와 가족의 삶을 위협하며 청년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 확대 요구의 실현을 가로막고 있는 새누리당 7명을 낙선 정당 및 후보로 선정했다.

낙선 후보로는 노동개약 5법을 대표발의하고 쇠파이프를 운운하며 폭력집단으로 매도한 기무성 대표, '초이노믹스'로 민생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전교조 법외노조화와 국정교과서를 강행한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 노동개혁·테러방지법·경제활성화 등 박근혜 대통령 관심법안이라면 밀어붙이는 원유철 원내대표, 평생 비정규직과 기간제법·파견법 개약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인제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 비용을 이유로 세월호 선체 인양을 반대했던 김진태 의원(당 인권위원장), 용산참사의 주범인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등 7명이다.

민주노총은 정당명부 투표 방침으로 민주노총 요구 및 민중총궐기 12대 요구를 수용하고 총선공동투쟁본부에 참여하는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 정의당 등 4개 지지정당으로 선정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노동개약 세력 심판하자!", "민주노총 후보 지지로 노동정치 강화하자!", "4월 총선 투쟁 승리하자!"며 구호를 외치며 총선 승리를 결의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박근혜 정권 3년은 그야말로 위선과 거짓 희망으로 점철된 암흑의 시간"이었다며 "재벌 독식 사회를 제어하기 위해 경제민주화를 시행하겠다는 약속, 그래서 '일 자리를 늘리고 일 자리를 지키고 일 자리 질을 올리겠다'는 약속,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펼치겠다던 약속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꿈과 희망이 사라지고 대신 해고, 실업, 노후, 전쟁의 불안과 공포감이 존재하는 이 절망의 시대를 끝내야 하고 재벌이 망친 민생경제와 박근혜 정부가 무너뜨린 민주주의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